

## 마야지역 원주민의 문화적 인권에 대한 고찰\*

정혜주(부산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 I. 들어가기 전에
- II. 사전조사: 원주민이란 누구인가?
- III. 1500년 이전의 마야 사람들의 삶
- IV. 1500년 이후의 마야사회
- V. 오늘의 마야 사회의 중요 제전
- VI. 맺는 말

### I. 들어가기 전에

아메리카 대륙의 중부 및 남부의 지역이 라틴아메리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아메리카의 존재가 알려진 후에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라틴 계열의 유럽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유럽에 알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라틴아메리카는 정치·경제적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라틴 유럽과는 매우 다르다. 유럽과는 지리적으로 다른 풍토에 적응된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이미 그들만의 문화적 전통을 지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 유럽 사람들이 정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 원주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각 나라의 발전은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원주민을 몰살시킨 푸에르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4-072-BM3062)

\*\* Hea-Joo Chung(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pztintin@gmail.com), "Rethinking about Cultural Human Right of Mayan Aborigine"

토리코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거의 백인들의 나라로서 유럽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존 지역에 산재한 원주민에, 흑인까지 곁친 브라질은 빈부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 30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문명이 존재하였던 메소아메리카<sup>1)</sup>와 안데스 지역에는 현재도 원주민이 60% 이상 되는 원주민 인구의 밀집 지역이었으므로 침입자들은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원래 있었던 것과 충돌하거나 융합할 수밖에 없었다.

서로 다른 세계의 충돌 또는 융합은 갈등을 일으킬 밖에 없었고, 갈등의 피해자는 당연히 정복당한 쪽의 몫이었다. 1521년 에르난 꼬르테스에 의해 아스텍제국이 멸망한 후에 스페인의 지배로 들어간 최초의 마야 지역은 현재의 메리다를 중심으로 하는 유카탄 북부지역이었다. 군사·정치적 정복을 정당화 하기위한 기독교 복음화의 정책은 비, 금성, 날개-뺨들을 섬기던 이 지역의 종교 중심의 문화를 거의 파괴시켰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모든 원주민은 스페인 사람의 피지배자가 되었다. 원주민이 지금까지 누리고 살던 모든 것이 침해당하였다. 그들의 과거를 잃어버린 위에 물질적 빈곤이 겹쳤다.

약 50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세계는 원래 주인이었던 이들의 권리에 대해, 이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500년간의 변화는 “무엇을, 어디로 되돌려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것부터 모호하게 만들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그들을 물질적인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정치-사회적으로 다시 피해를 입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사회권’과 ‘자유권’으로 표현되는 이 권리들을 원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하여 원주민에 관한 규약인 “169 협정(Convenio 169)”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에쿠아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니카라구아, 파라과아이, 페루, 멕시코 등 거의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의 나라가 이 협정을 받아들이고, 여러 곳에 원주

1) 지리적으로는 중미를 의미하나, 문화적으로는 올메카, 테오티우아칸, 우아스테카, 사포테카, 마야, 아스테카 등 멕시코, 과테말라, 온드라스, 벨리세에서 발전되었던 고대 문명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민을 도우기 위한 연구소를 세웠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미초아칸(Michoacan, Mexico)의 누에보 후안(Nuevo Juan), 유카탄(Yucatan, Mexico)의 메리다(Merida)와 바야돌리드(Valladolid)에서와 같이 원주민이 사는 마을을 깨끗이 정비하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하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도운 연구소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경제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고, 그들의 옛 삶의 형태, 즉 정신-문화적인 것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것이 회복, 또는 지켜야 할 문화인가도 분명치 않다.

마야언어를 쓰며 고대마야문명의 유적이 있어서 마야지역이라고 일컫는 곳은 멕시코의 유카탄반도에서부터, 치아파스, 벨리췌, 과테말라, 온두라스로 이어지는 지역이다. 이 지역주민의 45-65%까지가 원주민으로 분류되어 있다. 마야지역에 살며, 마야언어를 쓰며, 피부색깔은 갈색이며, 얼굴모습이 백인계통과 다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원주민(indígena)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정의는 불투명하다. 어쨌든 이들은 사는 지역의 인구분포에서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들이 유카탄, 치아파스나 과테말라의 거리를 걸으며 만나는 사람들을, 그들이 이미 순수한 마야 사람도 아니고, 사는 사회의 모습도 피정복 이전의 마야 사회와 다르지만, 손쉽게 마야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피부색, 얼굴모습 등의 신체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는 다채로운 색깔로 수를 놓은 우이빨(Huipil)도 우리들의 느낌을 지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모습에는 무엇인가 과거 문화의 모습이 남아있다. 즉 원주민의 정체성을 정의할 때 그들의 문화적 요소를 빼놓을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요소가 살사춤, 마림바 음악, 과달루페 성모 등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및 원주민 적인 것이 라틴아메리카의 나라에서 갖는 위치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바르셀로나에서 공부하고 있는 라칸돈(Los Lacandones)<sup>2)</sup>의 후예인 한나는 자신이 마야인의 후예라는 것을 선뜻 밝히지 못한다. 스페인에서 별로 고급인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2) 멕시코의 치아파스 지방에 사는 마야부족의 하나.

때문이다. 한나 자신은 할머니가 라칸돈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라칸돈의 숲속에도 가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야문명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주말이 되면 치아파스의 코팔(Copal)<sup>3)</sup>로 연기를 내면서 집안 구석구석의 다녔다. 나쁜 기운을 없애고 정화하기 위해서 라고 하였다. 그것은 바로 고대 마야사람들이 하던 일였지만 한나에게는 습관적인 일일뿐, 각별한 자각심은 없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과테말라의 원주민 탄압을 경험한 아니타 멘추와 운전수 후안에게 평화란 무엇일까 하고 물었다. 후안은 분쟁이 없는 것이라고 했고, 아니타는 입고 있는 치아파스 마야 전통의 옷을 만지면서 단순히 다르다고(피부색을 의미하는 듯) 인간으로서 대접을 못 받는다면 행복하겠느냐고 했다.

멕시코시티, 타바스코(Tabasco), 캄페체(Campeche), 유카탄과 키타나로(Quintana Roo)의 메스티소 마야사람들만을 보며 그들이 사는 환경 및 경제적 조건의 열세만이 문제이며 그들의 문화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상품적 가치 때문에 오히려 보호받고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한나, 후안 그리고 아니타의 반응은 원주민으로서의 그들의 갈등을 어렵듯이 느껴졌다. 그들은 마야의 관습을 따르고 옷을 입지만, 바로 원주민이라는 사실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II. 사전 조사: 원주민의 문화권을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

원래 마야사회의 계급구조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랐다. 왕족, 귀족, 평민들이었다. 그러나 스페인 정복이후는 피부의 색깔에 따라 나누어졌다. 인디오(Indio)는 자연인으로 그가 태어난 땅의 기질과 색깔을 닮았다. 메스티소(Mestizo)는 스페인 사람과 인디오의 혼혈로 인디오보다 한 층위의 사회적 위치를 지녔다. 라디노(Ladino)는 인디오지만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인디오로 메스티소중의 하나이

3) 제레를 할 때 사용하는 수지의 하나로 향기와 연기를 내며 탄다.

다. 크리오요(Criollo)는 인디오의 땅에 태어난 스페인 사람들로서 사회의 더 높은 층을 이루었다(Bernand 2001, 29-39).

정복 이후로 꾸준히 숫자를 늘려온 메스티소는 현재 원주민(Indígena)의 대부분을 이룬다. 최초의 혼혈은 유카탄반도에 표류하여, 강제적 또는 자의적으로 귀화한 곤살로 게레로(Gonzalo Guerrero)와 헤로니모 데 아길라르(Jeronimo de Aguilar)와 인디오 공동체의 여자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났다. 그러나 이후에 헤르난 꼬르페스와 도나 마리나(일명 말린체)에서부터 비롯되는 메스티소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복되어진 자였다. 더욱이 초기에는 정복자들의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던 이들 메스티소는 정복이 진행됨에 따라 단단한 수직적 사회구조를 이루어가는 중에 더욱 바깥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정체성을 지닌 계층이 인디오와 크리오요 사이를 연결시키며 식민지 시대를 이루었고 오늘날의 마야 지역의 주민이며 동시에 원주민이라고 분류되어진 계층이라고 본다. 이들은 메리다와 같은 도시에 살거나 흩어진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거나 개별적으로 살아간다. 각각 살아가는 조건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보았다.

2005년 1월 29부터 2월 9일 사이에 유적지 치첸이쯔아에 머물며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메스티소의 원주민들 여섯 명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들은 근처의 마을 사람들로 오후 4시경에 유적지에서 일한 후, 주말, 그리고 발굴계획이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는 각자의 밀파<sup>4)</sup>에서 일한다. 밀파(milpa)에서는 대체로 기본 식량인 옥수수가 충당되며, 설탕, 프리홀 등을 사서 보충한다. 밀파를 배당 받지 못한 젊은이들은 식당, 가게, 정원사 등으로 일한다. 즉 개개인의 땅(parcela)에 기초하고, 또한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을 하여 그 어느 쪽도 녀너지 않은 수입을 보충하여 산다. 그러나 대체로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학력은 모두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였다. 유적지에서 일하지만 마야문명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었고, 보편적인 정령의 개념인 알류스(Alux)와 절기에

4) 밭을 일컫는 말. 가족 또는 개인이 나라에서 배당받은 땅은 빠르셀라(parcela)라고 한다.

따른 제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예외 없이 마야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스페인 사람과의 혼혈은 외국인이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와서 함께 살며 자식을 낳으니 얼굴 모습과 피부색깔이 달랐다는 정도였고, 메스티소에 대한 개념은 없었다. 유적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학출신의 고고학자들만이 스스로가 메스티소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2005년 2월 4일에 있었던 유카탄 주정부의 원주민 기구(La Comisión Nacional para el Desarrollo de Los Pueblos Indígenas)의 주최로 열린 원주민 토론회인 “Foros de Consulta”에 모인 일반 원주민들도 메스티소에 대한 개념은 없었다. 이 기구의 주최자들은 대학을 나온 연구원들은 메스티소를 이해하고 인정했다. 그러나 원하지는 않았지만 혈연적으로 섞인 것 같이 원주민사회도 두 문화를 조화시킨 새로운 문화가 되어야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단호했다. 이 기구의 연구원인 페데리코 오소리오 메나(Federico Osorio Mena) 호르헤 마르띠네스 에스뜨라다(Jorge Martínez Estrada)는 원주민 공동체의 효과적인 운영과 민예품의 생산 등, 원래 마야적인 것의 유지 발전 및 복원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는 민예품을 생산하는 사람이나, 짬을 만드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메스티소적인 문화의 발전이라는 개념은 현장에서 일하는 고고학자와 고고학연구소에서 이야기를 나눈 인류학자들 외에는 없는 것 같았다. 즉 외부에서 그들의 문화의 특성을 분류하는 개념에 불과하였다.

이 반응은 상당히 의외였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여 보면 단순한 그들의 대답, “우리는 마야 사람이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마야 사람들은 이미 3000년 전에 이 땅에 살기 시작하여 다양한 형태의 흔적을 남겼다. 초기의 원시적인 모습, 올메카와 테오티우아칸의 문명을 받아들이며 고전기를 잉태하는 모습, 최대의 발전기인 고전기를 맞이하여 찬란한 마야문명을 이루는 모습, 비록 새로운 시대를 열지는 못했지만, 통합적인 국가를 이루려고 했던 후기 고전기가 쇠퇴하여 가고 있는 동안에 스페인의 침략자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이전의 문명을 부수고 그들의 문화를 심고, 마야혈통을 없애고 메스티

소의 인종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마야 사람들에게는 그 또한 흘러가는 시간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전의 모든 문명들의 요소를 결합하여 마야 문명을 이루었듯이 스페인의 침입 또한 마야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녹아질 수 있는 또 다른 요소일 뿐이다. 따라서 마야 사람들의 정체성 또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도 그곳에서 3000년을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데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주민으로서의 정체성 및 회복해야 할 권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복자들로부터 지배를 받으며, 사회 정치적 권리를 빼앗김과 동시에 사라진 그들의 문화를 다시 향유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원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원주민의 문화, 그들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따라서 고대문명의 문화, 식민지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원주민 인권에 관련된 사건, 오늘날 문화의 모습을 조명해보며 그들의 문화권을 정의해보고자 한다.

### III. 1500년 이전의 마야 사람들의 삶

마야 사람들은 기원전 약 1500년 전부터 과테말라 서부해안에서부터 문명을 시작하였다.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인구도 많아지고 도시도 많아져서, 과테말라 페텐지방, 온두라스와 벨리세, 유카탄 남부 치아파스에 걸쳐서 약 1000년간의 고전기 시대의 문화를 화려하게 펼쳤다. 이후 마야 사람들의 무대는 유카탄 반도 북쪽으로 옮겨가서 다시 약 500년간의 문화를 누렸다. 에스파냐의 정복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문명의 쇠퇴기로 접어들어서 많은 큰 도시들이 버려지고 마야 사람들은 촌락으로 흩어져 살았다.

### Ⅲ.1. 주거형태

대다수의 마야 사람들은 촌락을 이루고 살았었다. 한 촌락 당 5-10 정도의 집으로 이루어졌다. 각 집은 중앙마당에 돌이 세 개 놓여있는 집자리(platforma) 구조였고, 이곳에서 직계와 방계 가족들을 먹였다. 이 집들은 4-9 헥타르의 땅에 흩어져 있었다. 작은 중심지에는 피라미드나 그 종류의 공공건물이 몇 개 있는 1개의 광장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비석, 구기장과 돌을새김의 장식이 생략되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나 이 작은 중심지에는 50에서 100개 정도의 집이 있거나 10 내지 15의 촌락이 포함된다. 중심지에서는 촌락의 대표들이 행정이나 제전 행위를 주관한다.

큰 중심지에는 하얀 길(Sacbeh)<sup>5)</sup>로 연결된 몇 개의 광장 복합지(complejo plaza)를 포함하고, 구기장과 돌을새김이 있는 비석과 그에 속하는 건물과 피라미드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큰 중심지는 약 10개 내지 15개의 작은 중심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크기는 약 100제곱킬로미터가 된다.

고전기의 후기에는 이들로부터 지원받는 대형중심지(macro-ceremonial)가 나타난다. 여기에 티칼(Tikal), 코판(Copan), 팔렌케(Palenque), 피에드라스 네그라스(Pedras Negras), 칼라크몰(Calakmul), 코바(Coba), 우슈말(Uxmal), 사일(Sayil), 카바(Kabah), 라브나(Labna), 코말칼코(Comalcalco) 등등이다. 티칼의 경우는 5-600개의 공공건물이 있었으며 제전중심지는 최소한 1제곱킬로미터가 넘었다.

### Ⅲ.2. 인구

대부분의 마야주거지는 돌로 된 집자리(platforma) 위에 건설되었다. 집자리 위에 세워진 건물의 바닥에는 회벽칠을 했고, 벽과 지붕은 나뭇가지와 구아노 잎으로 엮든지 돌로 만들어졌다.

16세기의 스페인의 기록에 의하면 마야사람들은 한 집자리 위에

---

5) 고대 마야인이 건설한 포장도로

여러 가족이 살고 있는 것이 원칙이었다. 남자를 중심으로 한 직계와 방계 가족이 사는 것이 주된 가족 구조였다. 각 가족은 세 명이고 전체 가족 수는 8-10명이 평균이었다(Sanders 1973, 329). 그러나 마야 사람들은 한 지역에 모여서 살며 테오티우아칸과 같은 계획적인 도시를 건설한 고고학적인 증거는 없다, 마야의 도시는 전혀 계획되지 않은 분산된 주거형태를 보이는, 대체로 촌락 형태이다.

남쪽 저지대의 경우 선고전기 중반부터 말기 고전기까지는 인구가 증가하였고, 후기 고전기에는 급격히 인구가 줄었다. 티칼의 경우 에즈납(Eznab)<sup>6)</sup>시대에는 약 90%의 집이 버려졌다. 약 이십오만 평방킬로미터의 마야 지역에 평균 1평방킬로미터에 20명, 핵심적인 지역에는 100명, 많으면 200명까지도 살았다.

### III.3. 식량유지 (subsistence patterns)

열대우림지역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양분 적은 땅과, 금방 같은 땅을 쉽게 뒤덮는 잡초이다. 밭에 불을 지른 뒤에 막대기로 구멍을 뚫고 씨앗을 뿌리는 스위든(swidden)<sup>7)</sup> 경작방법은, 원시적인 경작법이라고 보기보다는 농부가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선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밭에 불을 지르면 잡초들을 태우고, 탄 재는 땅의 영양분이 된다. 인구가 증가하면 곡식을 많이 심는다. 그렇게 되면 막대기 대신에 호미나 쟁이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지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자연히 경작물은 줄어든다. 즉 땅의 효율이 줄어들면 다시 구멍 하나 하나에 씨앗을 심어야 한다..

마야사람들은 옥수수 뿐 만이 아니라 라몬 열매(구황작물)도 중요한 식량이었다. 출툰(chultun)<sup>8)</sup>에 라몬 열매를 저장하기도 했다 (Puleston 1968; Sanders 1973).

6) 각각의 지역, 또는 도시마다 발전의 정도에 따른 시대구분이 있다. 에즈납시대는 고전기 말기로 830-950년 사이의 기간이다.

7) 밭에 불을 지른 뒤에, 막대기로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씨앗을 떨어뜨리는 농경 방법으로 고대뿐만 아니라 현재의 마야지방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다..

8) 마야 사람들이 땅을 파서 만든 저장고로, 주로 먹는 물을 저장했다.

그러나 라몬은 페텐의 북동쪽 지방 외에는 그리 흔하지 않았다.

### III.4. 사회-경제 구조(Socioeconomic Organization)

스위든 경작은 대가족이 협력하면 충분한 경작방법이다. 커다란 정치적 구조가 나타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마야는 제전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계급사회였다. 초기고전기에는 농부들이 엘리트의 물건에 후기고전기 보다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또한 제전중심지(centro ceremonial)에 묻힐 수도 있었다, 후기고전기에는 거의 그런 일이 발견되지 않았다. 우악삭툰(Uaxactun)의 건물 A-V의 경우를 보면 초기에는 열려진 공간의 제전중심지였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접근이 통제되는 설계로, 공공적인 제전에서 개인적인 집-제전지로 바뀌어 가고 고전기 말기에는 개인의 저택 내에 있는 예배지로 바뀌었다. 이러한 현상은 마야전체에서 일어났다.

마야는 산업이전의(pre-industrial) 도시이다. 마야사회는 전문적인 생산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귀족들이 장거리 무역을 주도하였다. 16세기의 마야 사회에는 소금이나 흑요석, 화산석 등 몇몇 제한적인 물품 외에는 지방무역이나 산업의 전문화에 대한 흔적이 거의 없다. 특히 기본적인 생필품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전문화나 지역적인 물물교환이 높지 않았다. 마야의 자연환경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 III.5. 사고체계

약 3000년간 계속된 마야문명의 건축등에 나타난 기본 개념은 마야우주관의 표현이다. 마야의 우주관은 초기의 유적지인 이사파(Izapa)의 돌을새김에 기록된 포폴부에서 볼 수 있다. “마야의 세계는 세 번째 옥수수 인간에서 시작된다. 점쟁이 스피야콕과 스무카네 사이에서 운 우나푸(Hun Hunapu)와 부콕 우나푸(Vucub Hunapu)라는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다. 공놀이를 즐겨하는 그들은 지하세계, 시발바

에서 죽었다. 그러나 지하세계의 신의 딸로 인하여 다시 지상에 쌍둥이 아들들, 우나푸와 스발란케(Ixbalanque), 이 태어나게 된다. 그들은 죽음의 신들의 지하세계를 부수고 아버지를 부활시킨다. 그는 옥수수의 신, 최초의 마야 사람이 되었다. 우나푸와 스발란케는 해와 별이 되었다.” 포폴부의 이야기는 고전기 마야의 토기의 문양으로, 여러 유적지의 비문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16세기에 책으로 엮어져 전해진다. 즉 제전의 중심인 피라미드의 비문과 돌을새김, 토기 등에 포폴부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은 마야 사회에 있어서 포폴부는 사고체계의 기본이었음을 시사한다.

쌍둥이들의 전설은 떴다가 지고, 밤사이에 모든 어둠을 이기고 다시 나오는 해를 비롯한 별들의 이야기이다. 지하세계로 건너간 강은 은하수이며, 동시에 그것은 천상-지상-지하 세계를 연결하는 ‘세계나무’이다. 공놀이는 별들의 움직임이며, 구기장은 바로 하늘이다. 부활한 운 우나푸는 옥수수 신으로, 마야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조상신이 되었다. 옥수수 신은 운-날-예(하나의 옥수수가 나타남이란 뜻), 이참나 등 여러 이름이 있고 그 자신이 새로운 생명으로 세계나무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는 양쪽에서 우나푸와 스발란케의 보좌를 받는다. 옥수수신, 우나푸, 스발란케는 여러 신 가운데 중요한 삼위일체의 신이다. 바로 여기서 생명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이들을 나타내는 별자리는 오리온, 즉 삼태성이다, 바로 생명이 나오는 곳이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생명이 시작하는 곳은 세 돌이 놓인 화덕이다. 우주는 네모지고 각 귀퉁이마다 신이 들어 올리고 있다. 이들은 네 명의 파화흐툼(Pawahutun)이다. 가운데에는 세계나무가 버틴다. 마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 모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는 점쟁이, 사제이다.

이 장에서는 고대 마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야 사회의 형태는 조직적으로 모여 사는 도시가 아니고 떨어져서 흩어져 사는 촌락 사회이다. 마야의 자연은 특별한 산물이 지역마다 달라지는 다양한 환경이 아니다. 각 지역은 비슷한 형태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각의 촌락은 독립적이지

만 제전 중심지로 종교적 제전을 하기 위해 모여든다. 피라미드를 비롯한 제전 중심지의 건물들은 촌락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우주와 별들의 움직임의 상징이다. 산재한 작은 제전 중심지는 큰 제전 중심지로 연결된다. 종교적 제전을 통하여 분산적인 마야 사회는 전체적으로 연결되게 된다. 제전을 총괄하는 사제는 동시에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

#### IV. 1500년 이후의 마야 사회

스페인 사람들이 마야지역을 정복하자 이곳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은 메리다, 캄페체(Campeche), 산 크리스토팔 데 라스 카사스(San Cristobal de las Casas), 안티구아 과테말라(Antigua Guatemala) 등 몇 곳에 세워진 스페인 행정 기관, 특히 교회의 영향아래 있게 되었다. 다음은 이 사회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들과 식민사회 이후에 나타난 원주민에 대한 탄압에 대한 조사이다.

##### IV.1. 디에고 데 란다의 억압(EI Auto de Maní)

1562년 5월, 페드로 데 씨우다드 로드리고(Pedro de Ciudad Rodrigo)수사는 마니(Mani, Yucatan)에 가까운 한 동굴에서 두 젊은이가 우상의 형상이 있는 제단을 발견했고, 더욱이 그 우상을 위하여 희생을 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당시에 유카탄 지역 교구를 담당하고 있던 디에고 데 란다(Diego de Landa) 추기경에게 보고했다. 란다는 즉시 베드로수사에게 수도원의 다른 6명의 수사와 함께 누가 이 일에 관여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들은 마니마을 부근의 원주민들을 잡아서 문초했는데 손을 붙잡아 매달고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물어서 흠족하지 않으면, 발에 돌을 매달고, 채찍으로 때리고, 쫓놈을 몸에 떨어뜨리며 고문하였다. 일요일의 미사에 우상위식의 참가자들을 세우고 때리고 벌금을 물렸는데 이 모든 책임을 원주민

지도자에게 물었다. 따라서 원주민 귀족과 중요한 사람에게도 같은 판정을 내렸다. 란다는 기왕에 벌어진 일에 더욱 큰 효과를 내기 위하여 7월 12일에 귀족들과 교리 강독자들에게, 머리를 자르거나, 채찍으로 때리거나, 죄인의 옷을 입히거나, 강제노동, 일정기간동안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고 벌금을 물렸다. 그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이라고 인정된 원주민이 성스러운 땅에 묻힌 경우, 다시 파내어서 불에 태웠다. 이때에 우상의 형상들과 다른 유물들, 그리고 고문서들도 함께 태웠다.

이 조사에서 마야의 귀족들이 비밀리에 옛 제례를 해 왔던 사제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제례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옛 관습에 따라 희생도 하였는데,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당 안에서 옛날의 신을 모시고 젊은이나 어린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소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처럼 죽을 것이다. 예수는 우리들의 주이셨다, 그러나 그 이상은 모른다.” 이 끔찍한 박해동안에 의심을 받은 많은 원주민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목을 매었다. 1562년 8월에 이 사건이 캄페체(Campeche)의 토랄(Toral)신부에게 전해졌다. 그가 추기경으로 발령받자 메리다로 가서 고문을 금지하고 붙잡힌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가자들은 벌금 및 채찍질 등을 받고 방면되었다. 강제노동은 폐지되었다. 1563년 2월 토랄 추기경은 마침내 박해를 종결했다(Matos Moctezuma 1998, 217-219).

#### IV.2.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의 보고: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신부는 스페인 왕정에 1552년의 치아파스의 산 크리스토팔 데 라스 카사스 주위의 마을에서 있었던 종교적 대학살을 보고하였다. 남자, 여자, 어린이들이 노예화 되고, 고문당하고, 산채로 태워졌는데 “한번에 13명, 우리의 구원자와 사도 12명을 기리기 위하여”가 구호였다. 1524년에서 1540년 사이에 약 4-5백만명이 살해되었으며, 죽은 원주민들의 몸은 고깃간에 걸려 개들의 먹이로 판매되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고 “나에게 거기 있는 불한당

의 사분의 일을 쥐”하고 거래했다(Hepker 1998, 10-11).

#### IV.3. 첼탈(Cheltal)마을 사건

1712년 치아파스의 첼탈(tzeltal)마을에서 헤로니모 데 사라오(Jerónimo de Sarao)와 아구스틴 로빠스(Agustín López)는 기도하던 중에 성처녀 로사리오가 칸델라리아의 마리아(Maria de la Candelaria)에게 발현하여 ”스페인 사람들의 명에서 원주민을 해방하리라”는 메시지를 받아 반란을 선동하였다. 이 반란은 치아파스 원주민 역사 이래 유일하게 조직의 정도까지 이른 것으로 로사리오 성처녀의 발현; 예수-마리아-요셉의 보호아래 독립적인 교회의 성립; 종교적 제전의 중심지로서 성찬식과, 고해성사, 영세 등의 의식과 주교와 사제들의 계급적 질서조직을 이루었다(Vos 1998, 68-71). 즉 기독교의 외형을 갖춘 정치-종교 일체의 사회를 지향하였다.

#### IV.4. 유카탄의 계급전쟁(La Guerra de Castas de Yucatan 1847-1901):

지금까지 유카탄에 있었던 반란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기에 의존한 거대한 폭동이었다. 54년간의 반란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1847-1854)과 반도의 북동쪽의 밀림으로 물러나서 이 지역을 거의 50년 동안 정부의 지배에서 자유로웠던 기간(1854-1901)으로 나뉜다.

1847년 2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에 캄페체의 산 베니토 성채도 시에서 이루어진 음악회에 총과 칼을 든 반도들이 쳐들어와서 피를 흘리지 않고 성채를 점령하면서 계급전쟁은 시작되었다. 이들은 1년이 채 안 되어 유카탄의 바야돌리드(Valladolid)까지 진격했다. 마누엘 안토니오 아이(Manuel Antonio Ay), 하싌또 빠뜨(Jacinto Pat), 세실리오 치(Cecilio Chi)가 이끄는 이들의 목적은 각각 달랐는데 빠뜨는 라디노의 정부를 바꾸기 원했고, 아이는 모든 백인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싶어 하였고, 치는 그저 모두를 죽이고 싶어 했다, 여자와 아

이들까지도. 멕시코정부가 개입하여 군대를 보내서 이들은 유카탄 반도의 동쪽으로 밀려났다. 계급전쟁에 참가한 원주민 수는 85,091명이며 대장급은 103명이며, 이 중에는 가난한 백인들과 메스티소도 상당수였다. 동쪽에 사는 거의 순수 원주민 참가자는 11,000명이었다.

이 봉기는 새로운 지배체제에 가장 잘 저항하였던 중앙지역의 원주민 마을 테피치(Tepich)에서 1847년 7월 30일에 시작하여 티호스코(Tihosco), 페토(Peto), 바야돌리드(Valladolid), 티쿨(Ticul)과 이자말(Izamal)로 번져 거의 대부분의 유카탄 반도의 북쪽의 마을들이 합류하였다. 이들은 서북의 메리다 지역을 점령하고 또 다시 새로운 지역을 대농장화 하려는 시도에 맞서서 전통적인 자율권을 보전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봉기의 목표는 각 마을의 지도자에 따라 달랐다. 따라서 전체적인 응집력이 결여되어서 반군의 조직은 한 번도 하나의 명령 체계 아래서 움직인 적이 없었다. 각각의 마을이 ‘자연적인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각개전투를 하였다. 외적인 위협이 극심할 때만 함께 움직였다. 이러한 중에 메리다 정부의 정치적인 개혁 약속과 각 개인들의 경작지(milpa)에 대한 경제제재로 반란은 혼란해졌다. 두 명의 지도자가 살해당했고, 지도자들이 바뀌었다. 그 중에서 베나시오 뻍(Venacio Pec), 플로렌티노 찬(Florentino Chan), 보니파시오 노벨로(Bonifacio Novelo)와 메스티소인 호세 마리아 바레라(José María Barrera)만이 반도의 동쪽에 원주민형식의 자주적인 땅의 건설을 제안하였는데, 이유는 백인들을 완전히 쫓거나 괴멸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 제안은 바레라에게는 현실로 이루어졌다.

멕시코 군대에 쫓긴 호세 마리아 바레라가 사반바울에서 남동쪽으로 34킬로미터 떨어진 찬 산타 크루스(Chan Santa Cruz)에서 성스러운 후광이 둘러있고 말하는 십자가를 보았다. 동굴아래 작은 세노테 옆의 좁은 공간으로 내려간 그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자 세노테 곁에 십자가를 하나 세우고 찬 산타 크루스라 불리는 십자가 옆에 마을이 세워졌다. 순식간에 300호가 들어서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로 “원주민 공화국”의 중심이 되었다. 무장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사

체제와 “말하는 십자가”의 힘을 믿는 두 가지 요인으로 반란자들은 서로 다른 마을 출신지라는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합쳐졌다. 멕시코군대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바레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다 죽었지만 '말하는 십자가'는 살아남았다. 거의 뚫을 수 없는 셀바(Selva)<sup>9)</sup>와 벨리세의 영국인들과의 동맹, 온두라스(Honduras Británica)로부터 들어온 소총들 덕분에 이 반란자의 마을은 쉽게 점령되지 않아서 1901년이 되어서야 찬 산타 크루스 마을을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두 세계, 스페인 식민자들과 원주민, 원주민과 크리오요 사이에는 사회적 그룹이 다를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결코 융화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십자가 사람들(Cruzob)의 조직계보는 원래 마야 사회조직과 닮았다. 원래 마야 사회는 정치를 담당자, 종교 담당자가 최고에 있고 그 밑에 양쪽의 실제적인 행정관들, 그 아래로는 평민과 노예가 있었다. 십자가 사람들은 맨 위에 십자가보호자, 그 밑으로 십자가의 담당, 군대 담당의 양쪽의 실무진이 있고, 그 아래에 평민과 노예가 있었다. 반면에 식민지사회는 먼저 백인과 원주민 사회로 나뉘었고 총독 아래 정치와 종교 담당자, 그 아래에 백인 평민, 원주민 사회는 행정수반, 그 아래에 원주민 사면, 카톨릭 사제, 행정 실무자, 그 아래에 장로 모임과 평민이 있었다(Reed 2002, 209).

#### IV.5. 과테말라의 탄압

막스-레닌 주의자들이 지하에서 활동하던 1960년대부터 원주민의 불행은 시작되었다. 1954년 초 CIA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대가 민선 대통령인 하코보 아르벤즈(Jacobo Arbenz)를 몰아내었다. 대농장주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후르츠사에 막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민주화와 농장의 개혁을 막고 사악한 테러에 불을 붙였다. 대부분의 막스주의자들은 산과 비오는 숲속에 기지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원주민의 마을을 약탈했고, 마야사람들을 몰래 무기를 감추도록 했고, 정보를 강제로 얻어냈고, 가난으로 강제로 밀어 넣었다. 한마디로 그들이

9) 아메리카의 열대우림을 일컫는 말.

혁명을 수행하는 프로레타리아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게릴라 전사가 떠나자마자 군인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정보를 원했고 마을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게릴라보다 더했는데 고문, 강간, 미국으로부터 막 지급받은 총으로 사람들을 죽였다. 일부분은 게릴라에 합류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정부군에게 납치되어 군대에 끌려가서 그들의 마야 형제들에게 총을 겨누게 하였다. 많은 원주민들이 멕시코나 좀 더 깊은 산으로 도망갔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인종청소를 내세운 루카스 가르시아(Lucas García)와 리오스 몬트(Rios Montt) 장군들이 집권했을 때는 더욱 심각하였다. 1980년대에는 하루 평균 35-40명 가량이 살해되었다. 마침내 1996년 12월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정치적 전쟁 범죄를 조사하였으나 처벌되지는 않았다. 다만 인권유린만이 법정에 오를 수 있다. 현재 과테말라 정부는 동등한 시민권, 종교적 자유, 공식적으로 그들의 언어를 쓸 수 있으며, 법정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며, 어쨌든 민주화의 길에 있다고 본다(Hoepker 1998, 68-84).

식민지시대의 대표적인 두 박해는 종교에 기인한 것이었다. 종교는 마야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으므로, 지배자의 위치를 점령하여 정치적 권리를 가진 정복자들이 종교를 박해함으로써 원주민의 삶 자체가 바뀌어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가장 큰 반란 역시, 비록 기독교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원주민의 믿음이 배경이 되었다. 식민지시대의 박해는 종교로 대표하고 있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핍박이며 이것은 그대로 현대의 과테말라까지 이어졌다.

## V. 오늘의 마야 사회의 중요한 제전

오늘날의 마야사회는 도시와 농촌에 사는 사람들로 나뉘어졌다. 고대에는 도시는 큰 제전중심지로 작은 제전중심지가 있는 마을과 연결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도시에서 근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직 농사가 바탕이 되는 마을과는 매우 다르다. 근대화되어있는 대도

시에서 풍습을 관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마야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제한했다.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는 중요한 일은 역시 제전 행사였다.

#### V.1. 야수나(Yaxuna)의 기우제 차착Ch'a-Chak제

치첸이뜨아 근처의 야수나(Yaxuna) 유적지의 마을에서 1986년 프레이델(D. Freidel)은 마을 사람들이 기우제인 차착(Ch'a-Chak)제를 지내는 것을 보았다. 나무 탁자의 가운데에는 긴 나무를 세우고 방울 단 것을 두른다. 탁자의 네 귀퉁이에 네 명의 젊은이가 앉는다. 사이에 두 어린이가 더 앉았다. 십자가 위쪽으로 네 귀퉁이와 가운데를 가로 지르도록 여섯 방향으로 나뭇가지를 구부려 덮는다. 나뭇잎들은 가지에 매달려서 제단 위로 늘어진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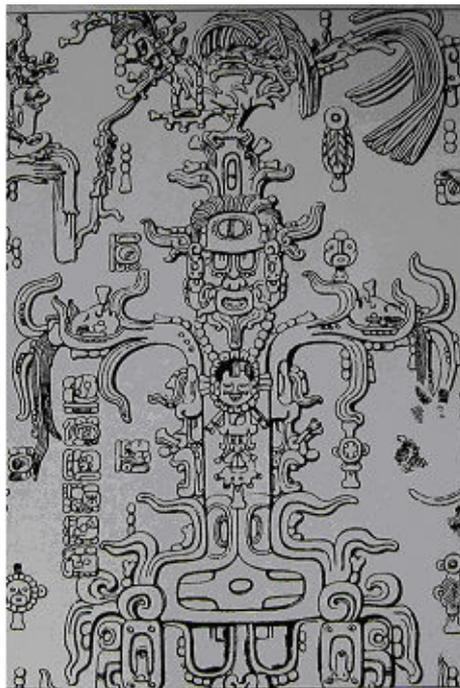
<그림 1 > 야수나의 차착 제전: 샤먼 돈 빠블로가 제단에 성스러운 공간을 만든다(Freidel, Schele & Parker 1993; 56에서 다시 찍음)

이렇게 만들어진 신성한 공간에 발체(balche)<sup>10)</sup>와 음식물, 촛불과 십자가를 놓고 샤먼은 수지향을 피우며 차착의 주문을 외운다. 샤먼 돈 빠블로(Shaman Don Pablo)가 우주의 질서를 다시 가동시켰을 때 인간세상과 다른 세상이 창조된 문에 의하여 만났다. 이 신성한 공

10) 마야의 제의용 술.

간에 그는 네 명의 신을 불렀고 함께 묶었다. 이 문을 통하여 그는 제물을 다른 세계로 보내었다(Freidel, Schele & Parker 1993, 51).

제단에서 보이는 중앙에 세워진 세계나무는 거북의 등에서 나오는 옥수수신처럼, 어둠의 세계를 이기고 부활하여 하늘과 지하의 세계를 이어주는 옥수수신, 세계나무이다. 가지 위로 늘어진 나뭇잎들이, 팔렌케의 십자신전(<그림 2> 참조)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옥수수의 세계나뭇잎임을 보인다. 네 귀퉁이는 바로 치첸이쯔아의 전사의 신전의 제단을 받히고 있는 네명의 과와흐툼(Pawahtun) 치고 있는 신을 상징한다. 수지향은, 약스칠란(Yaxchian)의 천정 부조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조상신의 나타남을 볼 수 있는 수단이다. 다만 마야 제전의 가장 큰 희생물이었던 인간은 닭으로 대신하였다.



<그림 2> 팔렌케의  
앞달린 십자가:  
옥수수신이 세계나무임을  
나타내고 있다.

## V.2. 시나칸탄(Zincantán, Chiapas)의 새해의 불 제전

1963년 치아파스의 시나칸탄에서는 일 년에 두 번 새해의 불 제전을 한다. 이 날이 되면 마을의 모든 샤만은 성스러운 산을 향해 행진을 한다. 우두머리 샤먼은 조수들을 다섯 그룹으로 나눈다: 촛불과 봉불을 준비; 제전중심지의 주위 산의 성소를 방문하는 팀; 시나칸탄의 교회를 방문하는 팀; 제전중심지의 서쪽에 있는 산의 제단에 봉불을 준비하는 팀으로 나눈다. 모이는 사람은 샤먼, 몰레틱(Moletik, 행정수반), 집사장(Mayordomos Reyes y Mesoneros, 성인들과 은둔자들을 돌보는 일), 집사들(Funcionario Civiles, 하급행정관들), 음악대, 남자 조수들이다. 순서는 1) 마야의 달력에 의해서 날짜를 정한다: 새해의 불제전은 1월말에서 2월초, 두 번째 제전, 중간 불제전은 6월 24일 이후, 연말제전은 11월 3일 이후이다. 2) 돈을 모은다. 3) 돈 쓰는 곳을 분배한다. 4) 제전의 조수들을 보낸다. 5) 샤먼들을 우두머리 샤먼의 집으로 부른다: 그들은 제전기간동안 집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문다. 6) 촛불 위에서 기도를 한다.

새로운 해를 위한 제전은 시나칸탄의 독특한 것이다. 모든 면에서 시나칸탄의 주요한 것이다. 샤만, 행정가들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 실제로 권력은 대표샤먼과 집사장(el Chaman Mayor y Gran Alcalde)은 시장(el Presidente Municipal)의 두 쪽으로 집중된다. 또한 제전의 구조를 보면 제전중심지와 주위 제전지의 상호 관계이다. 다른 하나는 신들과의 일체감이다. 시나칸탄의 모든 참가자들은 여러 성스러운 장소로 흩어져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모두 골고다의 산 정상으로 모인다. 여기서 그들은 각자의 집과 조상신을 소개하고 모든 참가자들은 중앙과 주변지역이 함께 연결 끈을 형성한다. 여기에 가장 큰 상징은 골고다언덕(Kalvario)으로 상징되는 가장 높은 정점의 상징이다(Vogt 1983, 255-270). 여기에 그들은 십자가의 성소를 지어놓고 미식바라밀(mixik' balami, 세계의 중심, 세계의 배꼽이란 뜻)이라 부른다(Freidel, Schele & Parker 1993, 124).

오늘날 치아파스 시나칸탄(Zinacantan)의 경우는 초기고전기의 마

야사회 형태와 똑 같다. 1960년 당시의 시나칸탄에는 7600명이 살고 있었다. 800명이 살고 있었던 초기 고전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적당히 분배되어 산의 계곡사이에 흩어져 촌락 형태로 살고 있었다. 시나칸탄 사람들은 전문적인 사제보다는 흩어져 사는 촌락의 시간제 평신도로 제례의식을 꾸려간다. 종교적 계급은 53개로 나누어져 4종류의 부서를 각각 책임을 진다. 제전기간동안에는 이 사람들은 제전 중심지에 거주한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은 맡은 비용을 지불한다. 개 개인은 여러 정도로 최고의 지위에 오르고자 한다. 이 조직으로 작은 주거지나 촌락에 흩어져 있는 농부들은 좀 더 큰 사회에 들어가게 되고 총 인구의 중 상당히 많은 사람이 종교적 조직의 지도권에 참여하게 된다, 왜냐면 책임을 맡은 자는 종교적이고 현실적인 친척의 도움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 V.3. 토토니카판의 시릴로 페레스(Totonicapán, Cirilo Pérez)

마야의 출킨달력에 의하면 오늘은 아크발(Aq'ab'aal)-13, 새해 첫날이다. 시리로(Cirilo)와 동료들은 안개가 깔린 코반(Cobán)산을 올라 칙소이(Chixoy)동굴에 도착했다. 수지향통, 촛불들, 맑고 독한 술과 꽃을 봉물로 바쳤다. 바닥에는 설탕을 뿌려 십자가를 만들고 주위를 빙 둘러섰다. 하얀 십자기 위에 봉물들을 올렸다. 제전집정자는 오래된 마야노래를 부른다. 모닥불이 피워지고 닭이 희생되어 피를 바쳤다(Hoepker 1998, 51).

### V.4. 산 호르헤 데 라 라구나의 막시몬(Maximón de San Jorge de la Laguna, Guatemala)

막시몬은 이상한 모습의 성자이다. 반은 마야의 우상이며, 반은 유다의 사도이다. 한 해에 한번 막시몬은 산 호르헤 데 라 라구나 마을의 광장에 세워진다. 그는 나무로 만든 인형으로 서양식 안경, 모자와 양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앞에 차려진 제단에는 페텐

마야의 천으로 덮여진 상에 빵, 담배, 도수 높은 술이 놓이고 초가 켜있다. 또한 꽃들로 제단이 장식되었다(Hoepker 1998, 68)(<그림 3> 참조).



<그림 3> 산호르헤의 막시몬: 마야의 우상과 유다의 사도 모습이다

#### V.5. 시캄보(Xcambo, Yucatan)의 성처녀

여러 해 동안 첸물(Chenmul)의 사람들은 풀숲과 늪에 가려 잊힌 유적지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집정원의 꽃을 가져가서 꽃고 촛불을 켜다. 첸물 사람들에 의하면 종교심이 강한 한 일하는 사람이 1998년 어느 날, 불을 켜려다가 유적지의 중앙광장에 있는 세노테<sup>11)</sup>에 빠졌다. 잠시 정신을 잃어다가 일어나보니 그의 팔에는 성처녀의 작은 상이 안겨 있었다. 50년 이상 전부터 마야의 성을 가진 첸물의 히

11) 유카탄지역에 있는 자연적인 우물.

-맨(h-man, sacerdote maya)이 매년 그의 기도와 봉물을 “바람들”과 “시캄보의 성처녀”에게 바치는 것을 알고 있다. 비슷한 이야기가 지빌찰툰 유적지의 세노테(cenote)에서도 전해진다(Follan과의 대화 2005). 아칸께(Acanceh)의 가장 큰 피라미드에도 성처녀가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네 마리의 뱀이 성처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라미드의 네 귀퉁이에서 살고 있다고도 한다.

현재는 매년 5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시캄보 주위의 여러 마을에서 모인 순례자들은 작은 마리아 상을 유적지 내의 성소에 두고 예배하기 위하여 허가를 얻는다. 남자들이 산에 봉물을 바치는 동안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한다. 대체적으로 사슴을 구하여 요리한다. 순례자들이 그물침대에서 자고 난 다음날 봉불의식을 행한다. 밤에는 십자 피라미드 옆의 작은 오두막에서 음악을 들으며 로사리오를 외운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이 모여 국물이 있게 만든 사슴고기를 나눈다. 다음 날은 성처녀와 바람들에게 감사의 봉물을 바치고, 참가자들은 음식을 함께 먹는다. 이사말(Izamal)에도 물이 있는 동굴 속에 성처녀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다(Luis Millet과의 대화, 2005). 오늘날은 마을사람들에 의해 오래전에 세워진 예배당,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보수한, 에 순례자들은 성스러운 우상과 수지향, 초, 꽃 그리고 성스러운 봉불을 바쳤다. 거기서 마냐니따(mañanita)<sup>12)</sup>를 부르기도 하고, 로사리오를 기도하며 쉼물의 주임신부가 미사도 본다.

현재의 마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제전은 옛날의 마야 사회와 깊은 연관이 있다. 야수나 마을의 조잡하고 초라한 기우체 제단의 상징은 마야의 화려한 피라미드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만약 고전기 마야의 지식층이 이 모든 개념을 오직 그들의 것으로만 발전시켰었다면, 마야문명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은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개념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마야 사람 전체의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새해의 불 제전에서 볼 수 있다. 불의 제전의 우두머리와 조수들, 그리고 주위 마을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의 모습은 바로 초기에서 고전기로 이어지는 마야사회 조직

12) 생일날에 부르는 스페인어 노래

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마야는 분산된 촌락이 종교적인 정점으로 모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정치적 통일성을 이룬다. 마야 사람들은 아직도 종교적 행사를 통하여 그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야사회가 정복자들에 의해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마야 사람들은 유연성을 발휘했다. 세계나무는 십자가로 바뀌었으며, 피라미드의 정점은 산꼭대기로 바뀌었다. 유적지의 성소는 교회로 바뀌었다. 시캄보 유적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용은 옛날 마야의 것이다. 세노테와 동굴, 모두 마야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장소이다. 시캄보의 제례의 순서는 불의 제전의 순서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처녀, 로사리오 등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다. 특히 산 호르헤의 막시몬처럼 전혀 다른 두 무명의 요소가 어색하게 함께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야의 신이 성처녀와 성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야 사람들의 사고체계의 핵심이 살아 있고 문화를 보존할 수 있었다.

## VI. 맺는 말

고대문명 지역 원주민의 인권 조사를 계획했을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갖은 것은 원주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들 스스로가 300년 이상의 스페인의 지배아래서, 비록 악연이라 할지라도, 혈연적으로 문화적으로 뒤섞인 메스티소에서 정체성을 찾으리라고 기대하였다. 즉 꼬리오요, 라디노 등의 모든 계급적 위치를 버리고 모두가 동등한 메스티소에서 출발하여 양 문화를 존중하여야 긍정적인 원주민의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여기에는 고대 문명의 가장 특징으로 정치-사회적 질서는 바로 종교적 질서였던바, 기독교적 질서를 세우기 원했던 스페인 사람들이 없애버리려고 했던 과거의 모든 흔적을 되살리는 것이 기본이 되리라고 여겼다. 따라서 현장으로 대담 및 답사 조사를 나갈 때에는 현재의 원주민은 어느 정도의 순수 마야 피를 갖고 있으나, 그의 선조를 기억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그들의 언어를 유지하고 있을까를 가늠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파악하려고 생각했었다.

정작 현장에 나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스페인의 지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다. 적어도 400년 전의 일이고 그 사이에 혼혈이 되어 민족적인 대립 감정은 이미 사라진 것이라고 추측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메스티소의 정체성에 대하여 묻게 되었는데 도시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 이외에는 메스티소에 대한 개념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피라미드에 놓여진 성모상과 성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모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립 의식이 없었다. 종교와 음식문화는 한 사회를 특징짓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또한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이다. 주변의 자연환경에서 얻어진 음식의 기본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300년 이상 스페인 지배체제가 바뀌기 원했던 종교체제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마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차착제나, 새로운 불의 제전은 우리도 전통문화로서 재현하고자 하는 단군제, 선황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예수와, 단군, 산신령을 혼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야 사람들은 완전히 혼동하여 시캄보의 성처녀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의 제전은 마야의 제전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식민지 시절에도 이미 적당히 혼동하여 제사를 지냈고, 필요하면 성모를 발현시켜 그들의 바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문화-정신 세계를 말살하려는 강력한 외부 세력에 대한 편법적인 보전책이었지, 마야의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가 어우러져서 나타난 메스티소의 종교는 아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피라미드를 보며 손쉽게 할리우드 영화에서 본 채찍을 휘두르며 거대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지배자의 하수인을 떠 올린다. 그러나 마야 사람에게 있어서 피라미드와 그 부속 건물들이 이루는 공간은 지배계급에게는 종교이자 통치의 수단이었고, 보통 사람에게도 삶과 믿음의 중심이었다. 그것이 그렇게 원주민의 삶 자체가 아니었다면 500년 동안 말살하고자 했었던 환경에서 기본적인 체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물

론 국가적 규모의 거대한 제전은 이미 사라졌고, 소박한 체제로나마 원형을 유지할 수 없었다. 정치적 압박은 “말하는 십자가“나 ”시캄보의 성처녀”, “산 호르헤 데 라 라구나”의 막시몬처럼 일그러진 형태로 살아남던가, 경제적 궁핍은 ”야수나의 차착제전“, ”시나칸탄의 신년제전“처럼 위축되고 조잡한 형태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역사적 흐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는 메스티소의 문화라는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라틴아메리카를 주도하고 있는 계급의 합리화이다. 크리오요와 일부 메스티소로 대표되는 이들은 그들의 문화를 에스파냐 본국과는 차별적인 것으로 그들의 독립적 권리를 정당화했다. 그들은 에스파냐에서 시작했으나 자연 환경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아메리카의 요소를 받아들여 새로운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이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도 피지배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원주민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하나와 또 다른 하나가 섞여서 제 3의 하나를 창조하는 것은 두 가지의 요소가 대등하게 섞일 때이다. 지배적이고 힘 있는 문화가 다른 문화와 충돌을 일으킨다면 힘 있는 문화는 힘없는 문화를 완전히 포함하거나 없애면서 정복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것은 일그러진 형태로서라도 그들의 것을 간직하고 있는 원주민의 문화이다. 이제 그들의 문화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마야 문화도 세계의 어느 지역, 어느 나라의 문화처럼 시간적 연속성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문화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가 일그러진 형태로 갈 것이 아니라 원형을 찾도록 새로운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권리로서의 문화적 인권이 만나는 접합점이 될 것이다. 그런 인식이 이루어진 위에서, 종교, 언어, 생계의 유지, 법적 지위 등 모든 현실적이 문제의 대책을 세우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Abstract

La civilización maya se cortó repentinamente por la llegada de los

españoles conquistadores. Parece que las creencias, los costumbres y los rituales de los mayas desaparecieran totalmente. Pero sus culturas autóctonas se absorbieron a la cultura española, creando una nueva cultura de mestizaje. Sin embargo, la entrevista con los mayas actuales y la investigación sobre los rituales actuales y la ceremonia regional revelan una continuidad de la cultura tradicional de Maya. Los indígenas mayas continúan sus rituales en base con los conceptos prehispánicos, siguiendo el calendario maya para celebrar los días importantes. Así la cultura tradicional de Maya se ha sido conservado en el área de Maya donde los indígenas mayas viven.

Key Words: Pueblo Maya, Derecho Indígena, Derecho cultural, Ritual, Continuidad  
/ 마야인, 원주민 인권, 문화권, 제전, 영속성

논문투고일자: 2005. 07. 25

심사완료일자: 2005. 08. 09

게재확정일자: 2005. 08. 20

## 참고문헌

- Bernand, Carmen(2001), “Mestizos, mulatos y ladinos en Hispanoamérica: un enfoque antropológico de un proceso histórico”. in Miguel Leon Portilla(ed.), *Motivos de la antropología americanista*, México: FCE., pp. 105-133.
- Culbert, Patrick T.(1973), *The Classic Maya Collapse*,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Freidel, David, Linda Schele & Joy Parker(1993), *Maya Cosmos*, New York: Quill William Morrow.
- Gómez, Magdalena(1995), *Derechos Indígenas: Lectura comentada del Convenio 169 de la Organización INternacional del Trabajo*, Mexico: Instituto Nacional Indigenista.
- Matos Moctezuma, Eduardo(1998), “Fary Diego de Landa: ¿ángel o demonio?”, in Eduardo Matos Moctezuma(ed.), *Los últimos reinos mayas*, México: Jaca Book/CONALCULTA, pp. 215-226.
- Hoepker, Thomas(1998), *Return of the Maya: Guatemala-A tale of survival*,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 Quintal Aviles, Ella F.(2000), “La Religión en las manos del pueblo”, in Armando J. Alfonso U. and W. George Lovell(eds.), *Mesoamérica*, Vermont, USA: Plumssock Mesoamerican Studies pp. 287-304.
- Reed, Neson(2002), *La Guerra de Castas de Yucatán*, México: ERA.
- Sanders, William(1973), “Cultural Ecology of Lowland Maya”, in Patrick Culbert(ed), *The Classic Maya Collapse*,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pp. 25-365.
- Sullivan, Paul(1991), *Conversaciones Inconclusas: Mayas y Extranjeros entre dos Guerras*, México: Gedisa.
- Villa Roja, Alfonso(1995), *Estudios Etnológicos: Los Mayas*, México: UNAM.

- Vogt, Evon Z.(1983), *Ofrendas para los Dioses*, México: FCE.
- Vos, Jan De(1998), “El Mundo maya rebelde”, *Arqueología Mexicana*, Vol. 6, No. 32, pp. 66-73.
- Maldonado Cárdenas, Ruben(1995), “Los sistemas de caminos del Norte de Yucatán”, in Ernesto Vargas Pacheco(ed.), *Seis Enayos sobre antiguos patrones de asentamiento en el área maya*, México: UNAM, pp. 68-89.